2 인문·사회 계열 B 유형

인문·사회 B 1

일반 정보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화법과 작문, 국어), 사회(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 정보의 비대칭 · 도덕적 해이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자료

[문항 1]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고 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한 편이 가진 그것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든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나 사고 관련 위험성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 회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보험 회사는 사고 관련 위험성이 큰 사람과 계약을 맺는 불리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일단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보험 가입자는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부를 보험 회사는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태만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상승, 그리고 보험 회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고 프로 구단에 입단하여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왔던 A 선수는 작년에 드디어 자유 계약 선수(FA : free agent) 자격을 얻게 되었다. A 선수는 구단들과 연봉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그의 경기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구단에서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A 선수는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무릎 관절의 부상을 숨긴 채 선수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거액의 계약이 가능해 보이는 유능한 선수가 자신의 약점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서 여러 구단과 줄다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종적으로 명문 B 구단이 거액의 다년 계약을 A 선수와 체결하였다. 물론 B 구단은 그의 무릎 부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FA 계약 이후 금년 시즌에 A 선수의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게다가 간혹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팬들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 A 선수의 무릎 부상이

경기력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간에 FA 제도에 의하여 계약상의 연봉을 보장받는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적지 않은 팬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출제 의도

(1)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의 현상을 분석,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	2019	75-76	-	재구성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	2019	85	-	재구성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자유 계약 선수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채점 기준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2) 분량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20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1) (가)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서도 파악하고 있는가?

(2) (가)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3) (가)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도덕적 해이로 귀결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그것이 (나)의 상황에도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채점방향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 A등급 이상 부여

(2) A 선수와 B 구단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2등급 감점

(3) 보장되어 있는 연봉 때문에 나타난 A 선수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1-2등급 감점

(4) (나)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도덕적 해이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를 별개의 사항으로 설명한 경우 : 1등급 감점

예시 답안

자유 계약 선수인 A 선수와 B 구단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였다. A 선수는 자신의 알려지지 않은 무릎 부상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B 구단은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구단은 결국 선수의 가치 이상으로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손해를 보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이 성사된 후에 보여준 A 선수의 태도는 도덕적 해이로 간주될 수 있다. 경기력에 상관없이 계약상의 연봉이 보장된다는 자유 계약 선수 제도에 안주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310자)

인문·사회 B 2

일반 정보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화법과 작문), 도덕(생활과 윤리), 사회(통합사회,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 전일론적 관점 · 개발과 보존 · 공존
예상 소요 시간	35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자료

[문항 2] 제시문 (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 (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인간의 개입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에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질서에 개입해서 얻는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생태계이므로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全一論)적 관점을 취한다고 해서 개발과 보존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생태계의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때 우선 고려할 것은 인간의 행위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나) 마을 숲은 '부족한 것을 풍수를 통해 보완한다.'는 한국의 전통 풍수 사상을 토대로 마을마다 조성되었던 숲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을 마을 숲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 인공적으로 마을 숲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경상남도 함양의 상림(上林) 역시 우리나라 고유의

마을 숲 중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인 신라 진성여왕 시기에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에 제방을 쌓고 그 위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한 것이 상림을 이루었다.

과거 이 상림은 수해를 방지하는 호안림의 역할뿐 아니라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의 기능까지 했다. 예전의 마을에서는 농사가 생계와 직결된 활동이었기에 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센 바람을 막아 농작물이 원활하게 열매를 맺게 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숲의 존재는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제방 위에 조성된 숲은 그 자체로 제방 근처의 동식물에게 적절한 생존의 터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그늘을 통해 기온을 조절함으로써 제방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또한, 제방에 자란 식물들 덕분에 토양은 항상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갑작스런 폭우로 물이 차더라도 제방이 금이 가거나 붕괴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비교적 낮은 산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고산 지대에는 기복이 작고 경사가 완만한 고원 지형이 나타난다. 고위 평탄면이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평지보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가 낮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배추, 무 등의 고랭지 채소나 목초 재배에 유리하여 이곳에서는 양, 소 등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일대는 목장과 고랭지 밭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었고 도로, 댐 등이 건설되어 왔다. 또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다수의 레저 시설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집중 호우 시 토양 침식이 심해졌고,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홍수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그 피해는 인근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출제 의도

(1)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적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3)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자신의 논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8	138	–	재구성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교육	2018	50	–	재구성
한국지리	박철웅 외 7인	미래엔	2018	40-41	–	재구성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전일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 제시문 (나)는 전통 마을 숲의 하나인 상림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 제시문 (다)는 고위 평탄면 지역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 자연의 균형이 파괴된 사례를 제시한다.
-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 근거해 (나)와 (다)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채점 기준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1) (가)에서 전일론적 관점, 개발과 보존, 조화와 공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2) (나)와 (다)를 비교·분석하는 데 (가)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했는가?

⊙ 채점 포인트

(1) (가)에서 전일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와 (다)의 사례에서 이를 적절히 적용하여 분석했을 경우 : A등급 이상 부여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까지 전일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지적해도 전일론적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함

※ 공통점 :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음

※ 차이점 : (나)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사례이고, (다)는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임

(2)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나)와 (다)의 공통점만 서술했거나, 또는 차이점만 서술한 경우 : 1~2등급 감점

(4)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나)와 (다)의 비교에 전혀 적용하지 못한 경우 : 2등급 감점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전일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인간, 동식물, 환경 등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생태계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익보다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의 상림은 수해를 방지하고 바람을 막아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게 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이용되면서도 동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제방 생태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 관계를 이루므로 인간이 조성한 숲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안정을 가져왔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 사례이다. 반면, (다)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사례이다. 고랭지 농업이나 목축업, 그리고 다양한 건설과 레저 시설 등의 개발로 일어난 산림 훼손이 인근 주민에게 홍수 피해를 주고 있다. 자연의 이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52자)

인문·사회 B 3

일반 정보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문학, 화법과 작문), 도덕(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 미적 가치 · 윤리적 가치 ·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유미주의)
예상 소요 시간	35분 / 전체 100분	

문항 및 자료

[문항 3] 제시문 (가), (나), (다)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공자는 "시(詩)에서 일으키고, 예(禮)에서 서며, 악(樂)에서 완성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공자는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의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했고 반면 아악(雅樂)은 인간의 성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인간은 예술을 통해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仁]에 이를 수 있다.'는 공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예술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방편임을 보여준다. 결국 예술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나) 문학에서 참여와 순수의 문제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설정된다. 시인 김수영과 평론가 이어령 사이에서 벌어진 '불온시' 논쟁은 1960년대의 대표적인 순수-참여 논쟁이다. 김수영이 보기에 당시의 현실은 독재, 빈곤, 무지, 허위, 속물 근성으로 인한 거대한 혼돈의 현장이었다. 특히 당시는 정치적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창작의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에 신작을 써놓고도 발표하지 못했던 김수영에게 당시의 현실적 억압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에게 있어 발표하지 못한 모든 시들은 현실 비판적 내용이 담긴 이른바 '불온시'로 여겨졌다. 그는 모든 '불온한 내용의 시'가 거리낌 없이 발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영광된 사회'가 올 것이라 주장했다. 김수영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작품 「푸른 하늘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위 작품에서 김수영은 자유가 자기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능동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소시민적 무능을 극복하고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는 김수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 J. 스톨니츠는 『미학과 비평철학』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이 무용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한다.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업주의에 물든 도구적 문화를 요구할 때 '예술을 위한 예술'은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된다. 예술은 '자유요 사치요 꽃 장식이고 태만함에 빠져 있는 영혼을 개화시키는 것'으로, 예술은 절대로 어떠한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와 성직자의 일이지 예술가의 목표는 아니다. 예술가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것을 생기 있게 하고 모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길 뿐이다. 경험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컨대 예술가는 '선과 악을 넘어서' 있다. (중략) '예술은 무감각한 도덕주의자가 상상할 수 없는 황홀경의 상태로 고양시키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스톨니츠는 『미학과 비평철학』에서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유미주의는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 미적인 감각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출제 의도

(1) 제시문 (가), (나), (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을 찾고, (다)의 견해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18	152	–	재구성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	2018	157	–	재구성
문학	김창원 외 11인	동아출판	2019	235	–	재구성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전체주의적 반공주의와 순수·참여 논쟁 – 이어령과 김수영의 〈불온시〉 논쟁을 중심으로	강웅식	상허학회	2005	195	–	재구성

문항 해설

- (가)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예술작품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여 인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나)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김수영의 문학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다)는 유미주의에 대한 소개로 예술이 도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내용]

⦿ 채점 방향

(1) 제시문 (가), (나), (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

(2)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견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는가?
(3)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 (다)의 견해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 A등급 이상 부여
① 제시문 (가), (나), (다)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모두 서술해야 함
(가) 예술작품을 통하여 품성을 함양하고 인격을 도야함
(나) 문학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소개함
(다) 유미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을 소개함
②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예술의 기능론적 견해를(도덕주의 포함) (다)의 유미주의적 관점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
(2) 위의 ①번 조건에서 두개만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 1등급 감점
(3) 위의 ①번 조건에서 한개만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 2등급 감점
(4)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 대한 서술만 있고 상호간 비교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등급 감점
(5) (가)와(나)의 공통점(예술의 기능론적 관점)을 (다)와 대비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예시 답안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예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만,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예술을 통해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에 이를 수 있다는 공자의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예술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인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나)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김수영의 문학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 억압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다)는 (가), (나)와는 달리 예술작품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유미주의자들에게 예술은 절대 그 무엇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예술은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미적인 감각만 불러일으키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533자)